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양 순 미[†]

농촌진흥청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어머니의 언어적 장벽 및 2개 국어 병용,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부진과 정체성 혼란 등의 발달적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인 연구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다문화가족이 갖는 특성과,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또래와 가족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또래수용($\beta=.30$), 아동의 연령($\beta=-.26$)이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아동의 행복감에는 가족의 지지($\beta=.38$), 어머니의 인지적 능력향상에 대한 아동 양육태도($\beta=-.31$)가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한국어 능통정도나 아동의 외모만족도, 어머니의 출신국가와 같은 다문화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과 같은 적응에는 또래 수용과 가족의 지지와 같은 사회심리적 관계요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요어 : 국제결혼, 농촌 아동, 다문화가족 아동, 행복, 학교생활적응

[†] 교신저자 : 양순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연구사,
Email : ysm@rda.go.kr

문제제기

최근 국제결혼이 우리사회에 급증¹⁾하여 새로운 가족문화형으로 확산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와 2세대 자녀들의 부적응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회자되고 있다(동아일보, 2006; 중앙일보, 2006; 한겨레, 2006). 일반적으로 부부는 각자의 성장배경이 다르고 인성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양식에도 차이가 있어서 상호적응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국제 결혼한 부부는 이외에도 언어적 장벽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문제들이 가중되어 적응과정에서 국내혼인한 부부들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양순미, 2006a, 2006b; 양순미·정현숙, 2006).

이와 같은 국제결혼한 부부의 부적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일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2세대 자녀의 적응문제이다. 가족의 환경 및 배경은 자녀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교육경험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가족교육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어머니의 배경은 자녀의 인성과 학업성취도 등 자녀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동범, 1998).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출생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게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또래들과는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김갑성, 2006), 어머니의 언어적 장벽 및 2개 국어 병용,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부진, 정체성 혼란 등 여러 측면에서 발달적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a; 문화일보, 2006 등).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경험적인 연구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국제결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미미하게 수행되어왔으며, 더구나 이들 결과들이 상반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조사에 의존하고 있어서 일관된 경향을 추론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과 같은 사회심리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온 가족지지 및 또래수용과 같은 요인과 여성결혼이민자인 어머니들의 언어능력 및 출신국가, 아동의 외모만족도 등의 다문화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인식하는 가족지지, 또래 수용, 자아존중감 수준은 국내혼인한 가족의 아동들이 인정한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으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적응을 측정하려 한 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이 사회심리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학교는 가족에서 벗어나 집단속에서 사회화 훈련이 시작되는 최초의 장소로 중요한

1) 2005년에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건수는 2004년에 비해 무려 21.8%가 증가하였고, 농촌지역에서도 8.5%가 증가하였다. 2005년에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국제결혼 유형은 전체 국내 혼인건수의 9.9%에 이르고 있다. 전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결혼 건수 중 2004년에는 27.4%, 2005년에는 35.9%, 2006년에는 41.0%가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다(통계청, 2006, 2007).

발달상의 함의를 지닌다(정윤주, 2004; 조대경, 1983; 한미현, 1996)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극히 미미하게 수행되어온 국내의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에 대한 연구를 농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는 점, 그리고 이의 자료가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선행연구고찰

농촌의 다문화가족과 2세대 아동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2006b)에 의하면 전국의 취학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는 6,695명에 달한다.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을 8개도 단위를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초등학교가 4,510명, 중학교가 494명, 고등학교가 96명이다. 최근 수년간 증가해 온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국제결혼 실태를 감안할 때, 자녀의 발달시기가 유아기인 2세대 자녀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구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0년에 출생하는 신생아의 32%가 다문화가족 2세대일 것이며, 현 추세대로라면 10~20년 안에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한다(중앙일보, 2006).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국제결혼한 남성들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고, 이로 인해 2세대 자녀의 성장과정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즉 국제결혼한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사람이며(윤형숙, 2004), 농촌과 도시의

하류층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으므로 국제결혼한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경우가 많고(이혜경, 2005), 한국인과 결혼하는 중국조선족 여성의 경우 학력이 비교적 낮고 무직의 여성이 절대다수인 것(이상은·강해순, 1998)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05)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고졸이 74.4%이고 남편도 이와 유사했으며, 현재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직업도 전문경영직이 25.7%, 사무직이 12.2%, 서비스직이 14.6%로서 낮은 계층의 직업군에 편포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양순미(2006a)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력은 평균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으로서 평균 중학교를 중퇴한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내혼인한 중년의 농촌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순미·정현숙, 2005; 양순미·유영주, 2002)와는 상이한 것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상대적으로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제결혼한 가족의 자녀들은 성장과정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편견은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다. 즉, 성장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별개인 다른 환경적 요인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은 언어학습 능력이 매우 낮고, 이것이 정체성과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외모의 차이·어머니가 외국출신이라는 점이 대인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야

기한다고 지적한다(조영달, 2006; 오성배, 2005). 그러나 3-5세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해 분석한 정은희(2004)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습득의 장애 비율이 높았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연령에 부합되는 발달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적응문제가 정태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적응의 폭에 긍정적인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취학중인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적응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행복에 농촌 다문화가족이 지닌 다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변인 및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머니의 출신국가별로, 그리고 국내혼인한 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한 결과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인 적응에 작용하는 요인

또래 및 가족 요인

또래관계와 가족관계는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 아동이 가족구성원이나 또래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들로 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사회심리적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정윤주, 2004; 한미현, 1996; van Aken & Asendorpf, 1997). 그런데 상보성 모델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적 관계 중 어느 한 체계의 기능이 부적절할 때 다른 사회적 관계체계를 통해 사회 심리적 적응에 필

요한 사회적 지지를 얻어 이를 보완한다. 예를 들면, 또래집단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학령기 아동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Patterson, Cohn, & Kao, 1989)에 의하면,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 중 어머니가 애정적인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 거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 Bandura(1977)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최초의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으로서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 및 성격발달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혜진, 2002, 개인용)고 하였다. Watson은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보다 잘 발달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교우간에는 상호 친절해 질 수 있고 독립적이며 자발성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정원식, 1994, 개인용).

한편 부모의 정서적인 보호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했을 때 자녀들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여 주었으며(Rosenberg, 1965), 자아개념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나 또래관계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사라, 박혜원, 2005). 또한 정유진(1999)이나 Allen, Hauser, Bell, & O'Conner(1994)에 의하면 청소년의 적응행동이나 낮은 비행률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온 또래 수용 및 자아존중감, 아동이

인지한 가족의 지지, 어머니의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²⁾ 양육태도 등의 요인들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의 행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적인 요인

다문화적인 요인이라 함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가족내에서 생겨나는 차별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은 언어학습능력이 매우 낮고, 이것이 정체성과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외모의 차이·어머니가 외국 출신이라는 점이 대인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되는가 하면(조영달, 2006; 오성배, 2005), 어머니의 언어적 장벽 및 2개 국어 병용,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부진, 정체성 혼란 등 여러 측면에서 발달적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a; 문화일보, 2006 등). 그러는가 하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아동이 학습능력이 탁월하다는 보고(연합뉴스, 2002)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정도, 어머니의 출신국, 아동의 외모만족도와 같은 아동이 경험하는 다문화적인 요인들이 이들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2)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이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주희, 2000).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촌 남성과 중국, 일본, 필리핀 여성이민자가 국제결혼한 가족 중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2세대 아동과 여성 결혼이민자³⁾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로 제한 한 것은 첫째,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대다수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라는 점과, 둘째, 선행연구 부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2세대 자녀들의 모집단의 규모가 작으며, 또한 규모에 비해 분포범위가 넓어 표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을 다양화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연구대상의 동질성의 오류의 문제를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에 아동의 어머니를 포함한 것은 여러 선행연구(조영달, 2006; 오성배, 200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다문화적인 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나 기타 다문화적인 요인을 어머니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05년도에 조사된 중국, 일본,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한 농촌가족 150가구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전국 7개 시·군에서 62농가를 선정하여 1가구에서 1명의 어머니와 1명의 자녀를 표집하였다.

조사는 2006년 7월 24일 부터 8월 31일 사

3) 농촌의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적응과 발달 특성에 관한 조사에는 이들을 담입하는 교사 20명을 질적연구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자료만을 분석·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로 구성된 조사원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설문면접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척도

본 연구에서 이용된 아동관련 변인은 학교 생활적응, 가족지지 인지, 자아존중감, 또래수용, 외모만족도, 가족환경만족도 등이다. 어머니 관련 변인은 출신국, 아동에 대한 또래관계 유능성 양육태도, 인지능력 양육 태도, 한국어 능통정도 등이다. 이중에 아동의 외모만족도, 어머니 출신국, 어머니의 한국어 능통도는 다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아동관련 변인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이영선(1997)이 사용한 척도를 5개 영역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마음 놓고 한다’, ‘나는 운동장 청소나 화단 가꾸기 등 학교를 가꾸는 일에 참여한다’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가족지지 인지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중 가족지지와 관련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81)의 척도중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김은경, 2005, 재인용).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나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때가 있다’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46이었다.

아동의 또래 수용을 측정하는 척도는 Seidman 등(1999)의 3문항 척도를 이용하였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한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나는 친구가 많다’로 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72이었다.

외모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김은경(2005), 임수진(2002)의 연구를 참고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는 피부색 등 얼굴 모습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끔 나의 외모 때문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52이었다.

가족환경 만족도,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는 양순미와 유영주(2003)의 척도를 참고하여 각각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불만족(1)에서부터 매우 만족(5)까지 5점 Likert로 되어 있다.

가족생활 행복도도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주 행복하지 않다(1)에서부터 아주 행복하다(5)까지 5점 Likert로 되어 있다. 기타 고민 문제 등은 명목형으로, 나이 등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어머니 관련 변인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박주희(2000)의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중 자녀를 또래관계에서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등에 관해 유능한 아동으로 기르는 것을 어느 정도 중요한 양육목표로 삼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10문항의 척도로 구성하고, 부모의 인지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공부나 학업성취 등에 관한 적극적 태도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약간 중요(1)에서 부터 매우 중요(5)까지의 5점 Likert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래 관계 유능성에 대한 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한국어 능통정도는 자신이 인지하는 한국어 능통정도를 하하에서 부터 상상의 수준까지 6 점 Likert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은 개방형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뒤 재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량과, ANOVA,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남자아동이 46.77%이고, 여자아동이 53.23%이었다. 형제 자매수는 2명

인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의 50.0%로 가장 높으며, 출생순위는 장남 또는 장녀인 경우가 응답자의 85.48%이었다. 어머니가 외국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83.88%가 보통 또는 좋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38.71%가 학업성적으로 고민한다고 응답했다(표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응답자중 중국인 어머니는 20.97%, 일본인 어머니는 51.61%, 필리핀인 어머니는 27.42%이었다. 가구형태는 59.02%가 핵가족이였으며, 40.98%가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확대가족이었다. 응답자의 48.28%가 복합농가이었고, 22.41%가 시설원에 농가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52.4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24.59%이었다. 어머니들의 88.5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9.84%가 농업과는 관계없이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취업해 있는 상태이었다. 거주기간은 10년이 43.33%로 가장 높았으며, 11년이 28.33%이었다.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신의 한국어 능통정도는 중하의 수준이 43.33%로 가장 높았으며, 중상수준이 38.33%이었다(표 2).

어머니 출신국가별 ANOVA에 의한 아동과 어머니 관련변인의 수준

아동 관련 변인에 대한 ANOVA 분석

아동이 인지하는 또래수용,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가족지지, 어머니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선호도, 가족생활 행복도,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 가족환경만족도가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내용	변인		통계량	
	집단	n	%	
나이 (평균 9.87, 표준편차 1.32)	8세	8	12.90	
	9세	15	24.19	
	10세	28	45.16	
	11세	5	8.06	
	12세	1	1.61	
	13세 이상	5	8.09	
	계	62	100	
성별	남	29	46.77	
	여	33	53.23	
	계	62	100	
형제-자매	1	3	4.84	
	2	31	50.00	
	3	22	35.48	
	4	5	8.06	
	5	1	1.61	
	계	62	100	
출생순위	1	53	85.48	
	2	9	14.52	
	계	62	100	
어머니가 외국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	아주 싫다	2	3.22	
	약간 싫다	8	12.90	
	보통이다	20	32.26	
	약간 좋다	16	25.81	
	아주 좋다	16	25.81	
	계	60	100	
고민	외모	3	4.84	
	학업성적	24	38.71	
	친구관계	14	22.58	
	가정불화	7	11.29	
	가정빈곤	4	6.45	
	없다	7	11.29	
	기타	3	4.84	
계	62	100		

표 2.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내용	변인	통계량	
		n	%
출신국	집단		
	중국	13	20.97
	일본	32	51.61
	필리핀	17	27.42
	계	62	100
가족 형태	부부+자녀	36	59.02
	부모+부부+자녀	25	40.98
	계	61	100
학력	중졸	6	9.84
	고졸	32	52.46
	전문대졸	15	24.59
	대졸이상	8	13.11
	계	61	100
직업	농사	54	88.52
	공장(잡일)	2	3.28
	자영업	3	4.92
	회사원	1	1.64
	농사+자영업	1	1.64
	계	61	100
영농형태	시설원예	13	22.41
	미맥	10	17.24
	축산	3	5.17
	과수	4	6.90
	복합 등	28	48.28
	계	58	100
거주기간	7~9년	9	15.00
	10년	26	43.33
	11년	17	28.33
	12~17년	8	13.34
	계	60	100
한국어 능통정도	하-하	0	0
	하-상	2	3.33
	중-하	26	43.33
	중-상	23	38.33
	상-하	5	8.33
	상-상	4	6.67
	계	60	100

표 3. 학교생활적응 및 가족생활행복 관련변인의 어머니 출신국별 특성

변인		통계량			
변인명	집단	n	M	S.D.	F값
또래 수용	중국	13	12.00	3.21	0.58
	일본	32	11.13	2.23	
	필리핀	17	11.06	3.01	
외모 만족도	중국	13	13.77	3.85	0.10
	일본	32	13.34	2.78	
	필리핀	17	13.41	2.48	
자아 존중감	중국	13	26.23	3.47	0.66
	일본	32	24.91	3.96	
	필리핀	17	25.82	4.00	
학교생활 적응	중국	13	39.08	5.41	1.79
	일본	32	35.66	5.48	
	필리핀	17	36.94	5.71	
가족 지지	중국	13	34.38	4.44	2.92
	일본	32	32.06	5.52	
	필리핀	17	29.65	5.63	
어머니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선호도	중국	13	3.62	1.12	0.11
	일본	32	3.63	1.18	
	필리핀	17	3.47	1.01	
가족생활 행복도	중국	13	4.23	1.09	0.52
	일본	32	4.06	0.67	
	필리핀	17	3.94	0.66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	중국	13	4.46	0.97	0.51
	일본	32	4.34	0.83	
	필리핀	16	4.13	1.09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	중국	13	4.62	0.65	0.43
	일본	32	4.66	0.65	
	필리핀	17	4.47	0.72	
가족환경 만족도	중국	13	4.62	0.65	1.58
	일본	32	4.16	0.88	
	필리핀	17	4.12	0.93	

<표 3>에 의하면 아동의 또래수용,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가족지지, 가족생활 행복도,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 가족환경 만족도는 일본이나 필리핀인 어머니를 둔 아동보다 중국인 어머니를 둔 아동의 경우에서 높았다. 어머니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선호도나 어머니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이나 필리핀 보다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양상들이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국내혼인한 가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결과, 김은경(200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경우 국내 초등학교 6학년의 자아존중감은 22.12, 4학년은 23.50수준인 것에 비해, 농촌의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인지한 자아존중감 수준은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세 집단 모두에서 이 보다 높았다. 또래 수용정도에 있어서도 정윤주(2004)의 연구에서 국내 남자아동들의 또래 수용정도는 평균 10.5, 여자아동들은 10.6수준인데 비해, 농촌의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의 또래 수용정도는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세 집단 모두에서 보다 높았다.

그런데 가족지지와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미현(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혼인한 가족의 초등학교 아동들이 인지한 가족지지는 평균 31.63 수준으로서, 중국과 일본인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 인지하는 가족지지 정도는 이 보다 높았지만 필리핀인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 가족의 아동은 이 보다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김림자(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혼인한

가족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수준은 백분위 74.2 수준으로서, 중국인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 인지하는 학교생활적응은 이 보다 높았지만 일본과 필리핀인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이 보다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교준거는 연구방법이나 연구대상 및 연구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여 일반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인지하는 적응이나 가족의 상호작용 수준에는 외국인 어머니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농촌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심리적인 발달수준이나 적응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관련변인에 대한 ANOVA 분석

어머니가 인지하는 아동의 또래관계 유능성 및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양육 태도가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표 4), 또래 관계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일본인 어머니가 가장 높았고 필리핀인 어머니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국내혼인한 가족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박주희, 2000)에 비교하면(평균 43.6, 표준편차 ± 4.87), 일본인인 어머니는 보다 높은 반면, 중국과 필리핀인 어머니는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구시기 및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성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동의 지적 능력향상에 대한 어머니의

표 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출신국별 특성

변인		통계량		
변인명	집단	M	S.D.	F값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위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국	42.85	4.24	4.04*
	일본	44.34	4.48	
	필리핀	40.00	6.57	
아동의 인지적 능력 향상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국	12.00	2.04	1.04
	일본	11.25	1.67	
	필리핀	11.94	2.38	

* p <.05

양육태도는 중국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필리핀, 일본인 순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행복에 작용하는 변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아동 및 어머니와 관련된 일반적인 변

인과 다문화 특성의 변인이 미치는 상대적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10개의 관련변인들을 투입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 행복 관련 변인들은 r=.02~.51의 상관을 이루고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⁴⁾

표 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도 관련요인들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학교생활적응	1.00									
2.또래수용	0.49***	1.00								
3.외모만족	0.34**	0.31*	1.00							
4.자아존중감	0.51***	0.49***	0.49***	1.00						
5.가족지지	0.46***	0.38**	0.23	0.38**	1.00					
6.가족생활행복도	0.22	0.30*	0.14	0.27*	0.46***	1.00				
7.가족환경만족도	0.38**	0.28*	0.19	0.14	0.34**	0.17	1.00			
8.어머니의 한국어능통정도	-0.02	0.10	0.11	-0.09	0.17	0.05	0.05	1.00		
9.어머니의 또래유능성 양육태도	0.09	0.05	-0.39**	-0.05	-0.05	-0.17	0.03	-0.05	1.00	
10.어머니의 인지능력 양육태도	-0.04	0.06	-0.30*	-0.02	-0.14	-0.29*	0.10	-0.06	0.49***	1.00

* p <.05 ** p<.01 *** p<.001

표 6.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변인	학교생활적응		가족생활행복도	
	B	β	B	β
어머니 출신국	2.01	0.15	0.05	0.03
아동의 연령	-1.13	-0.26*	0.11	0.18
또래 수용	0.63	0.30**	0.05	0.17
외모만족도	0.17	0.09	-0.05	-0.20
자아존중감	0.32	0.22	0.03	0.17
가족지지	0.13	0.13	0.05	0.38**
가족환경 만족도	0.92	0.14	0.07	0.08
학교생	-	-	-0.01	-0.06
어머니의 한국어 능동정도	-0.32	-0.05	-0.08	-0.09
또래수용 유능성 양육태도	0.21	0.21	-0.01	-0.08
인지능력 양육태도	-0.40	-0.14	-0.12	-0.31*
Intercept	18.40		2.64	
F값	6.03***		2.55**	
R ²	0.55		0.37	
Durbin-Watson D	1.94		1.77	

어머니 출신국 : 중국(1)⁵⁾, 기타(0) * p <.05 ** p<.01 *** p<.001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아동 자신의 자아존중감($r=.51$), 또래수용($r=.49$), 가족지지($r=.46$), 가족환경만족도($r=.38$), 외모만족도($r=.34$)의 순서로 높게 유의한 상관을 이루었다. 아동의 가족생활 행복도는 아동 자신이 인지한 가족지지($r=.46$), 또래수용($r=.30$), 어머니의 인지능력 양육태도($r=.29$), 자아존중감($r=.27$)의 순서로 높게 유의한 상관을 이루었다.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 행복도는 $r=.22$ 의 상관을 이루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⁴⁾

4) 일반적으로 투입된 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인호, 1983).

이어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 행복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94와 1.77이었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2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전체모델의 55%를, 가족생활행복에 대해서는 전체모델의 37%를 설명하고 있었다(표 6).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아동의 또래수용($\beta=.30$), 연령($\beta=-.26$)이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즉 아동의 또래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들의 가족생활행복에는 가족의 지지($\beta=.38$), 어머니의 인지능력 양육태도($\beta=-.31$)변인이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즉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부 및 학업성취나 대한 어머니의 관심 및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가족생활행복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가족구성원이나 또래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들로 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사회심리적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정윤주, 2004; 한미현, 1996; van Aken & Asendorpf, 1997)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논의 및 해석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출생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또래들과는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어머니의 언어적 장벽 및 2개 국어 병용,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부진, 정체성 혼란 등 여러 측면에서 발달

적 장애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일부 극소수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사례조사한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서 일반성을 부여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다른 측면에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 발달에 부합하는 언어발달 수준을 나타내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과 행복에는 가족지지, 또래수용 등의 일반적인 요인과 여성결혼이민자인 어머니들의 언어능력 및 출신국가, 아동의 외모만족도 등의 다문화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인식하는 가족지지, 또래 수용, 자아존중감과 같은 요인들은 국내혼인한 가족의 아동들이 인지한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첫째, 농촌 다문화 가족의 초등학교 학생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이나 가족생활 행복에는 다문화가족이 직면하는 어머니의 한국어 능통정도, 어머니의 출신국, 그리고 아동의 외모만족도와 같은 다문화적인 특성보다는 또래수용이나 가족의 지지와 같은 사회심리 및 관계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통정도나 출신국가, 그리고 아동의 외모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이나 가족생활 행복에 유의하지 않게 작용한 것은, 아동들의 사회심리적인 적응에는 환경적 요인 또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다문화적인 특성보다는 또래관계나 가족의 지지와 같은 관계적인 요인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정의적 측면에는 부모들이 진솔한 양육태도보다도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지적(김성연, 1980)을 고려할

5) 어머니들의 출신국을 가변수화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결혼생활적응과 결혼만족에 대해 어머니들의 출신국에 따라 ANOVA분석 및 사후검정한 결과에 의해서 중국(조선족)은 1로, 일본과 필리핀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중국(조선족)은 일본과 필리핀인에 비해 한국어 및 생활문화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때, 어머니가 진술한 아동에 대한 또래유능성 양육태도가 아동이 인지하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 이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일치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는 또래관계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에서 비롯된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관한 교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교육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농촌의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과 또래수용정도는 국내혼인한 가족의 아동들이 인지하는 수준보다 높았다. 가족지지에 대한 인지정도에 있어서는, 중국과 일본인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국내혼인한 가족의 아동들 보다 높게 인지했으나 필리핀인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보다 낮게 인지하였다. 학교생활적응수준에 있어서는, 중국인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국내혼인한 가족의 아동들 보다 높게 인지했으나, 일본과 필리핀인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보다 낮게 인지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연구방법이나 대상 및 시점의 차이로 인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아동들이 인지하는 적응이나 가족의 상호작용 수준에는 외

국인 어머니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아동들의 적응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적응교육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촌의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적응과 행복과 같은 사회심리적 적응에 일반적인 요인과, 다문화적인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인지수준이 국내혼인한 가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한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약된 가운데 소규모의 데이터를 양적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며,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계속 검토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고혜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능력과의 관계. 인천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6a).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6b).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지원 대책.
- 김갑성 (2006).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립자 (2004).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적용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 (1980).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 자아 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호 (1983). 회귀분석론. 서울: 비봉출판사.
- 김은경 (2005). 아동이 외모만족도,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2006). 전북장수초등학교 92명중 20명이 혼혈학생. 2006. 2. 16일자
- 문화일보 (2006). 혼혈아 '말 어눌하다' 또래들 따돌림 심해.
- 박주희 (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 양순미 (2006a).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2006. 농촌사회, 16(2), 151-192.
- 양순미 (2006b).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 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5(5), 111-128.
- 양순미·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2006.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3.
- 양순미, 정현숙 (2005).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종단적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27-46.
- 양순미·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양순미, 유영주 (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75-91.
- 연합뉴스 (2002). 이중언어 아동 “지적능력 앞선다”. 연합뉴스, 2002. 10. 8일자.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 한국여성학회 10월 심포지엄 발표 논문.
- 이사라, 박혜원 (2005).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 및 자아 개념의 매개 효과 - 중국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39-57.
- 이상은, 강해순 (1998). 중·한 섭외혼인 생활의 실태와 전망. 서울: 한국가정복지정책연구소.
- 이영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과 성패귀인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수진 (2002).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정유진 (1999).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윤주 (2004). 또래관계 경험 및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5.

- 정원식 (1994). 인간과 교육. 배영사.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주동범 (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 연구, 8(1), 41-56.
- 중앙일보 (2006). 코시안 정치세력화 가능성-2020년엔 신생아 3명중 1명이 혼혈.
- 조대경 (1983). 정신위생. 서울: 적성출판사.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통계청 (2006, 2007). 2005, 2006 혼인통계결과.
- 한겨레 (2006). 코시안과 더불어. 2006. 2. 14일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e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9-194.
- A., & Aber, J. L. (1999). The risk and protective functions of perceived family and peer microsystems among urban adolescents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211-237.
- Patterson, C. J., Cohn, D. A., & Kao, B. T. (1989). Maternal warmth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risks associated with peer reje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 21-3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idman, E., Chesir-Teran, D., Friedman, J. L., Yoshikawa, H., Allen, L., Roberts, van Aken, M. A. G., & Asendorf, J. B. (1997). The risk and protected family and peer microsystems among urban adolescent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211-237.
- van Aken, M. A. G., & Asendorpf, J. B. (1997). Support by parents, classmates, friends and siblings in preadolescents: Covariation and compensation across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79-93.
- 1 차원고접수 : 2007. 11. 11.
심사통과접수 : 2007. 12. 13.
최종원고접수 : 2007. 12. 22.

**Variables Impacting the School Life Adjustment
and Family Life Happiness of the Women Marriage
Migrants Family's Children in Rural**

Yang, Soon Mi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variables impacting school life adjustment and happiness of the children attending a elementary school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of rural.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peer accept($\beta=.30$), and age of student($\beta=-.26$) affected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children significantly. Support degree of family($\beta=.38$), and rear attitude on cognitive ability of mother($\beta=-.31$) affected happiness of the theirs significantly. But the variables such as mother's skilful degree of Korean language, and satisfaction degree on appearance of the children were not significant.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in adjustment of the children social-psychological relation variables could affect importantly above all things.

Key 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rural children,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happiness, adjustment of school life